

PRIMER EJERCICIO:

등장 인물에 관하여

이는 바로 등장 인물의 카테고리의 경우이다. 한 순진한 독자가 언급된 카테고리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인 전통, 그리고 철학적, 예술적 또는 문학적인 논쟁이 존재한다고 믿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점은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에서 이미 이 주제를 다루었었고, 그리고 고전 주의적 이론에서 그 특성의 연구가 주요하게 간주되었던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이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이외에 이러한 근본적인 주제, 그러나 비교적인 한정된 참고 서적들의 미미한 자료들로만 구비되어져있는 이 논제에 접근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은 필자에게는 한 특권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한 미지의 원천에 접근한다는 것을 경험하게한다.

모든 등장 인물들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속한다. 한 등장 인물은 인간으로 제시되어 나타난 인물이며, 또한 한 일정한 존재, 한 일정한 인물들에 의하여 그리고 한 정해진 상태에서 객체, 대상으로 간주된다. 등장 인물은 가정상의 또는 실제의 사람이며, 어느 상황에서나 고려되어지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를 지각하는 사람에 의하여 분리되고 구별되며, 동시에 한 일정한 의미에서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성화 또는 개별화의 과정을 거친, 비교적 실제적이 아닌 한 타입의 성격이 부여됨으로 등장 인물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명백하게, 모든 인간들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개성화 되어질수 있으며, 등장 인물의 카테고리에 들어 갈수있다. 이는 한 인물 또는 몇 인물들이 자신에게 또는 타인들에게 어떠한 반향의 표시를 채택하거나, 원하거나 그리고 획득하게 하는 결정을 혹은 행동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따를 것이다.

꿈꾸어진 등장 인물은 대체로 그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조건 아래 교차된 여러 겹들의 면들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종의 혼동 또는 공간 간격에 반응하여 나타나있다. 이러한 등장 인물은 근원적으로 오리지널한 원형이며, 이가 유일하다고 간주되어 질수있는 역설적이고 적절한 의미에서 인간의 손, 즉 의지에서 벗어 나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흔히 신화와 연결되어지고, 사람의 정신 세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장인물은, 한 철학가의 이론에 의하면, 상징적인 투영과 무의식에 속하게된다.